

# 예수님 안에서 참된 나의 정체성 (My true identity in Jesus)

16.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As soon as Jesus was baptized, he went up out of the water. At that moment heaven was opened, and he saw the Spirit of God descending like a dove and lighting on him. 17. And a voice from heaven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Matt. 마 3:16-17)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롬 Rom. 8:29)

# 자신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yourself and knowing God)

- “우리는 사실 언제나 어느 정도 자기 만의 하나님 상(image)을 만든다. 그 이미지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그려 온 하나님의 모습처럼 되어 가는 것이다.” In fact, we always make our own image of God to some extent. That image actually makes us. Eventually, we become like the image of God we have drawn. - Brennan Manning
-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Lord, let me know myself to know you - St. Austin
-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Knowing yourself is the beginning of all wisdom - Aristotle
- “당신 마음의 문을 발견하라. 거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임을 깨닫을 것이다.” Discover the door of your heart. You will realize that it is the door to the kingdom of God - John Chrysostom

## 강력한 세상(사탄)의 유혹(A very powerful world(Satan)'s temptations)

- 예수님이 받으신 정체성에 대한 유혹 - 거짓 자아로 살게 만드는 유혹 The temptation of the Jesus' identity - the temptation to make us a false self
- 첫번째 유혹: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성과, 보여주기) The first temptation: what I do is me (performance, show)
- 두번째 유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곧 나다(인기, 인정받기) Second temptation: It's me that people think about me (popularity, recognition)
- 세번째 유혹: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소유) Third temptation: what I have is me (owned)

첫번째 유혹: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성과, 보여주기) The first temptation: what I do is me (performance, show)

1.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3.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1.Then Jesus was led by the Spirit into the desert to be tempted by the devil. 2.After fasting forty days and forty nights, he was hungry. 3.The tempter came to him and said,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se stones to become bread.”(마 Matt. 4:1-3)

-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을 찾기 위해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는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직업, 학력 등**) People easily fall for the temptation of success in the world to find their value and importance(Job, ability, etc.)

두번째 유혹: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곧 나다**(인기, 인정받기)

Second temptation: It's me that people think about me (popularity, recognition)

5.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a.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5. Then the devil took him to the holy city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6a.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매긴다. Most people value what others think is more important than what they think.
- **바리새인들의 신앙** - 구제, 기도,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Pharisees' faith-relief, prayer, fasting. Do not do your righteousness to be seen by men (마 6장)

세번째 유혹: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소유) Third temptation: what I have is me (owned)

8.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8. Again, the devil took him to a very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and their splendor. 9. "All this I will give you," he said, "if you will bow down and worship me."

• 세상 문화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근거로 성공을 평가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진다. World culture evaluates success based on what people have. People feel secure through what they own.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6:30)

-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현실에 등을 돌리는 것과 같다.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현실로 돌아온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영혼이 내뿜는 언어이자 마음이 외치는 부르짖음이다. Ignoring emotions is like turning your back on reality. When we listen to emotions, we return to reality. It is a place where we meet God. The emotions we feel are the language spoken by the soul and the cry of the heart.
-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귀를 틀어막은 채 그 감정들을 부인하고 왜곡하며 우리 안에서 떼어 내려 한다. 내면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불안한 감정은 모두 걸러낸다. 의식 속에 감정이 침투하는 것에 겁을 먹고 부끄러워한다. However, we often deny, distort, and tear down our feelings with our ears closed. To control the inner world, all uneasy feelings are filtered out. I am scared and ashamed of the penetration of emotion into consciousness.
- 이처럼 강렬한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잃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고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 낼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Ignoring such intense emotions is not only denying yourself, but also losing an amazing opportunity to know God. We must not forget that change begins when we are cruelly honest and reveal our vulnerabilities before God.

# 참된 자아(정체성)을 계발하라(Develop a true self (identity))

- 7월 홀리위크 실천 목표 (July's Holy Week practice Goals)
- 침묵과 홀로있기 - 묵상과 영성 일기 쓰기 (Silence and being alone - contemplation and spirituality)
- 주중(월 - 토)사이에 주 3회, 1시간 이상하기(3 times a week, 1 hour or more between weekdays (Monday-Saturday))
- 예) “어떤 기분이 들었지?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리 흥분한 거지? 오늘 오후에 왜 우울했을까?” 등 감정에 대해 느낌을 쓰고 하나님께 가져가기. 기도문으로 써도 됨 Example) “How did I feel? Why am I angry? What was I afraid of? What makes me so excited? Why was I depressed this afternoon?” Write your feelings about your feelings and take it to God. You can write it as a prayer





- 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